



**곽영훈**  
한국자원연구소 소장

**활용기술 개발과 실용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병목현상을 완화시켜 안정적인 조업을 가능케 하고, 리에서는 산탄지역이 훌륭한 고원관광단지 같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 시작하며

탄광합리화사업의 결과 국내에는 11개의 탄광만 남게 되었지만 이들도 조만간 숫자가 줄어들 것으

## 석탄산업정책, 무엇이 최선인가?

로 예상되고 기존 탄광도 심부화의 진전으로 생산성에 한계를 불원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연산 300만 톤 수준의 생산 유지도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석탄산업은 존재의 기로를 맞고 있다.

태백시에서 지난해 12월에 범지역적인 쉼기대회를 연 것도 현지민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현안이었기 때문이지만 국가로서는 무작정 수용만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도 단순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인 철학을 가지고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이 제시되어 합의점이 찾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석탄산업의 문제점

석탄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사용이 불편하고 가격경쟁력도 뒤지기 때문에 민수용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공급은 고정비용 때문에 이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무연탄 전소 화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대체수요처를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탄광합리화사업을 진행시

킴에 따라 대규모 정부비축에 의존하는 왜곡된 수급구조가 나타나게 되었고, 지역경제 공동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없어 석탄의존적인 단일수직경제구조(mono economic structure)의 붕괴만 촉진시킨 후 탄광지역 진흥사업으로 카지노사업을 유치해 곧 개장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수의 주민이 떠나버렸고 단기적으로는 극히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성과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과다기 소의계층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의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장기간에 걸쳐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반을 정비하고 대체기업을 유치해 나가며 지역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으며 서서히 탄광 합리화 사업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보다도 지역 산업 생산액이 더 높아져 무리없는 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빨리 단순 경제논리로 추진해 일본과 대비가 되고 있다.

석탄산업을 둘러싸고 명맥유지냐, 조기에 퇴출시키고 고원관광단



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는 상반된 주장이 있어왔고 아직도 확실한 정부 의사 표명은 없다. 그러나 현재까

지로 본 정부 석탄정책의 기반은 최소한의 명맥유지로 유사시에 대비하며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무연탄 수급상황은 수요는 380만톤 정도에 불과하나 생산은 440만톤 규모로 연간 60만톤 정도의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비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비축량도 근 800만톤으로 이제는 부지확보도 수월치 않고 관리를 위한 금융비용도 만만치 않음으로 카지노사업과 연계해 1~2개의 주요 탄광이 생산을 중단하면 현재의 400만톤 생산체제가 자연적으로 300만톤 생산체제로 전환되며 수급균형이 맞게 됨으로 이를 기다리는 것이 현 실상이다. 이러한 바램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것이지만 주산지인 장성의 경우는 심부화의 진전으로 현생산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생산비 부담이 커져 그냥 놔둘 경우 얼마 안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국내 무연탄의 연간 수요는 380만톤 정도이나 생산은 440만톤 규모로 매년 60만톤 정도의 공급과잉이 발생. 현재 정부비축량이 약800만톤으로 부지확보와 금융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300만톤 생산체제의 유지 자체도 어려워지고,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퇴조되며 사회불안 요인으로 등장될 것이므로 단순 경제논리만을 앞세울 수는 없다.

### 바람직한 정책방향

탄광을 일시에 정리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4조8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 정도 들지만 대신 연산 300만톤 규모 유지시 연간 3000억원, 현재 규모일 때 연간 56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므로 최소규모로 최소 10년간만 유지시키더라도 훨씬 비용부담이 적어 일시정리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논리에 덧붙여 기술적으로도 현장실험할 장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며 이미 막대한 고정비용투자가 이루어진 탄광을 그대로 수몰시킬 경우 향후 정착 필요해도 비용 때문에 자원의 개발은 영원히 못하게 될 것인만

큼 현재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가능할 때 생산해 유사시를 위한 보험 성격으로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

하기도 한다.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것만이 석탄산업을 유지하며 정부부담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볼 때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무연탄 발전소의 신규 건설이다. 비록 99년도에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한전 민영화 계획을 추진할 경우 무연탄 발전은 원자력 및 수력과 묶어 국영으로 해야만 하고 이에 필요한 원료를 조달하는 광산은 해당 발전소의 종속탄광으로 만들어 발전소 수명 동안 안정적인 계획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발전소 건설에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외화 대체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우선 순위를 국내탄을 이용하는 무연탄 발전소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산탄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탄지역을 중심으로 석탄이용 특별지구를 설정하고 이 지역의 주에너지원은 석탄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 기술



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무연탄의 청정연료화를 위한 노력과 대규모 지역난방 시스템으로서의 무연탄 유동상 연소 시스템의 도입 및 열병합 발전도 대안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소규모 수요이지만 시멘트 연료로의 혼입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만큼 유연탄과의 가격 차이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면 당장이라도 창출될 수 있는 수요부문이 된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정부비축 물량의 활용은 대북 경협물자의 하나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북한의 주종 에너지원이 석탄인 만큼 무연탄을 지원하는 것은 식량지원 못지 않은 생필품일 것으로 생각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소규모 탄광은 과감히 정리하고 태백시와 같은 주산지로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대체산업으로의 전환이 될 기간동안 안정적인 탄광 가행 유지가 필요한 지역일 경우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장애를 제거해 생산비도 낮춰 재정부담을 줄이며 안정공급기반을 조성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장성의 경우 -250m 수준이나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무연탄 발전소의 신규건설, 신탄지역을 석탄이용 특별지구로 지정, 비축석탄을 대북경협물자로 활용하고, 공급측면에서는 소규모 탄광은 과감히 정리하고, 주산지는 대체산업으로의 전환기간동안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대는 350m 수준임으로 가채탄량이 최소 2천만톤은 되어 이러한 조건에 부합된다고 본다.

### 맺으면서

경제 성장기에 국가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했던 석탄산업의 사양화를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안

을 찾아 유일한 국내 부존자원인 석탄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원 분야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램일 것이다.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용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만큼 정책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병목현상을 완화시켜 안정적인 조업을 가능케 함으로써 자원의 활용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져 21세기에는 신탄지역이 무리없이 훌륭한 고원관광단지과 같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행이 되었으면 한다. (S)

